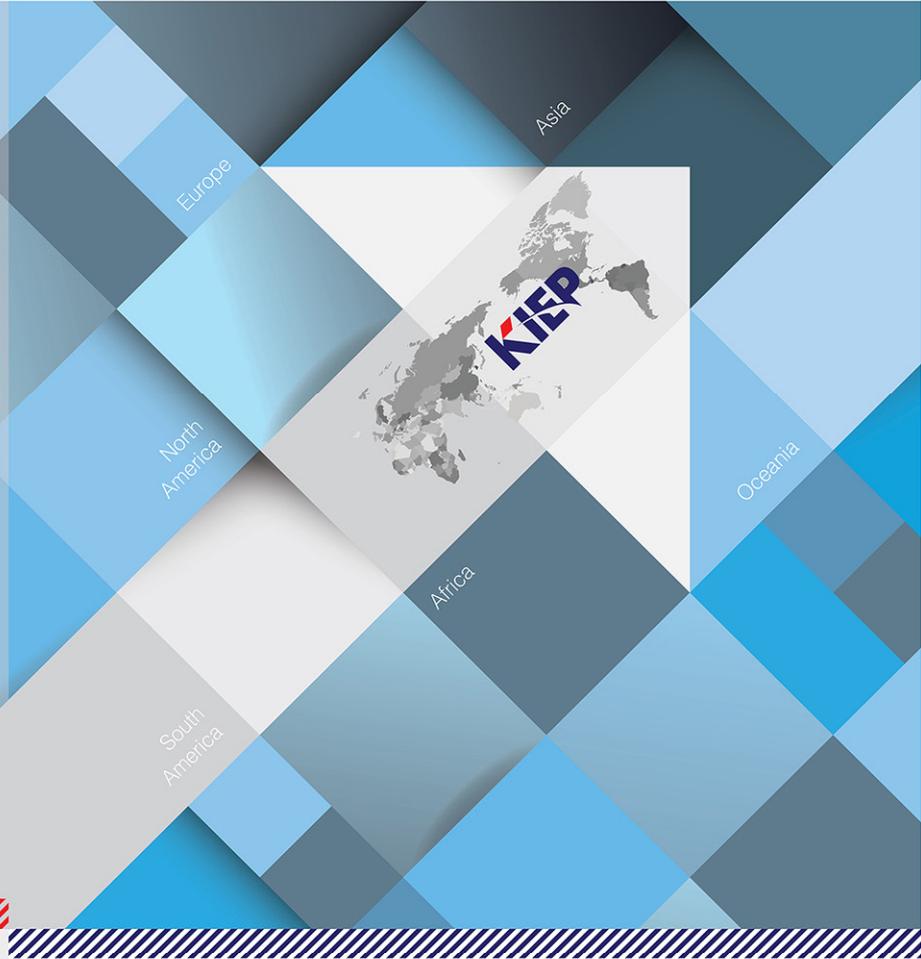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20-08

2020년 7월 13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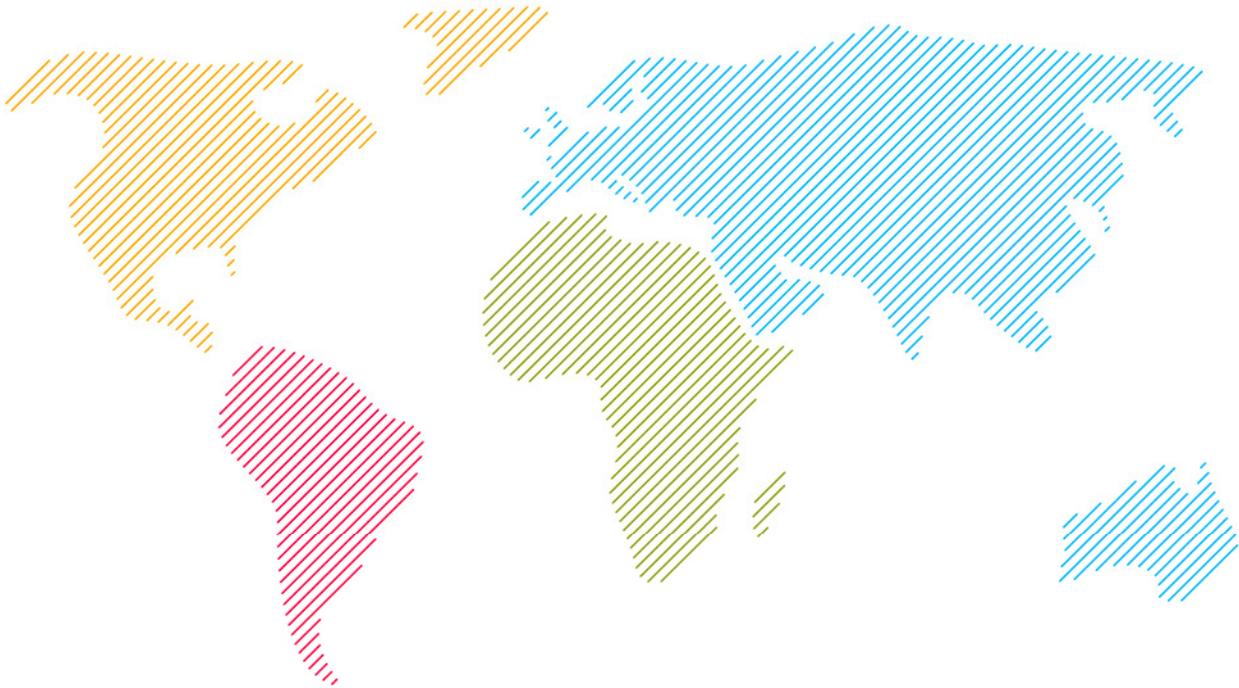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044-414-1064)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요약

- ▶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영국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 중
- ▶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후 3년 내에 영국 무역의 80%가 FTA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목표로 비EU 국가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예고
- ▶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 무역의 52%를 차지하는 비EU 국가와의 통상관계가 크게 변화
 - 브렉시트에 따라 EU가 76개 역외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자동으로 이탈하게 되어, 이들 국가와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FTA 추진이 필요
 - 기존에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없었던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신규 FTA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
 -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기 종료와 함께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고, 영국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존 EU의 공동역외관세(CET)를 대체할 관세체계가 필요
- ▶ 영국정부는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 체결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 무역협정 개시 △영국산업 구조에 맞춘 영국대세계관세(UKGT)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 중
 - 영국은 기존에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48개국과 무역 지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개 국가와 현재 협상 중
 - 미국과는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호주·뉴질랜드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6월 중 FTA 협상을 개시
 -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현재 단계적 발효 중인 EU·일본 EPA를 기반으로 추진 중
 - 기타 MFN 관세 적용 국가와의 교역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자국의 소비와 산업 패턴에 맞추어 기존 EU 공동역외관세(CET)보다 자유화된 UKGT를 발표(평균세율 5.7%, 영세율 품목 47%)
- ▶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유럽 의존도와 원산지기준 변경 등으로 자율성에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
 - EU 및 EU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EU 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등)가 영국의 통상관계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
 - 미국과의 FTA 협상은 보건 및 소비자 안전이 직결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난항 중
 - 또한 FTA 체결 후에도 브렉시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변경으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 한국과 영국은 2019년 8월 대체 FTA를 체결하여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였지만, 양자 교역에서 EU 부분품의 역내산 인정문제 및 영국과 일본의 FTA 협상 결과 등에 의한 영향은 불가피



차 례

1. 검토 배경: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2. 기존 EU 무역협정 체결국 대상 통상정책
 - 가. 대체 무역협정 체결 및 교역 동향
 - 나. 대체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신규 FTA 추진 동향
 - 가. FTA 협상 대상국 및 교역 동향
 - 나. 협상 현황 및 주요 쟁점
 4. 최혜국관세 적용 대상국과의 교역
 - 가. UKGT 적용 대상국 및 교역 동향
 - 나. UKGT 내용 및 주요 특징
 5. 결론: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정책 과제
- 부록: 영국의 상품무역 현황

1. 검토 배경: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에 대비하는 중

-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2020년 6월 12일 EU 측에 공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2021년 영국의 EU 완전 탈퇴가 확정됨.¹⁾

■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EU의 과도한 규제 탈피 및 자유무역 추진을 목표로했던바,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비EU 국가(EU 역외국)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예고

- 현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후 3년 내에 영국 무역의 80%를 FTA에 적용받게 한다는 목표²⁾
- 영국의 비EU 무역은 영국 교역 전체의 52%로,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상과 더불어 EU 역외국가와의 기존 무역관계 유지 및 신규 FTA 체결이 매우 중요

■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정책에 따라 EU 역외국은 △기존에 EU가 체결한 통상협정을 대체해야 하는 국가 △신규 FTA 추진 대상국 △기타 최혜국(MFN) 관세 적용 대상국으로 구별됨(표 1 및 부록 참고).

- 기존에 EU가 76개 역외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자동으로 이탈하게 되므로, 이 국가들과의 무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무역협정 필요
- 영국정부는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호주·뉴질랜드와 신규 FTA를 우선 추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³⁾
- 그 외 WTO 회원국과의 교역에는 2021년부터 WTO 양허관세가 적용되고, 영국정부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EU 공동 역외관세(CET)를 대체할 영국대세계관세(UKGT: UK Global Tariff)를 발표

1) 영국정부 홈페이지, "Government accelerates border planning for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ccelerates-border-planning-for-the-end-of-the-transition-period>(검색일: 2020. 6. 28).

2) Bloomberg(2020. 2. 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31/johnson-wants-80-of-u-k-trade-covered-by-deals-in-3-years>(검색일: 2020. 6. 28).

3) 영국정부 홈페이지, "UK's Position on Joining CPTPP,"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approach-to-joining-the-cptpp-trade-agreement>(검색일: 2020. 6. 26).

표 1.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 통상정책 대상 구분

(단위: 백만 달러, 괄호 안은 %)

구분	국가 수	교역 규모		영국 통상정책	주요국	
		수출	수입			
유럽연합(EU)	27개국	215,250 (46.0)	342,546 (49.5)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EU 전체	
EU 역외	EU 무역협정 체결국	76개국	73,750 (16.0)	무역연속 FTA (Continuity Agreement) 추진	일본, 스위스, 한국, 노르웨이 등	
	무역협정 미체결국	그 외	179,159 (38.3)	232,981 (33.6)	신규 FTA 체결 추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WTO 양허관세 적용	기타 WTO 회원국

주: 교역 규모 및 비중은 2019년 기준. 무역협정 체결국은 협정 임시발효국 포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26).

■ 이에 본 기초자료는 비EU 국가를 중심으로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영국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영국의 통상정책 대상별로 △2장에서는 기존에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대체해야 하는 대상국과의 교역 및 대체 FTA 체결 동향 △3장에서는 신규 FTA 추진 상대국과의 교역 동향 및 교섭 주요 내용 △4장에서는 최혜국관세(MFN) 적용 예정인 기타 국가와의 교역 동향 및 영국 UKGT의 특징을 살펴봄.

2. 기존 EU 무역협정 체결국 대상 통상정책

가. 대체 무역협정 체결 및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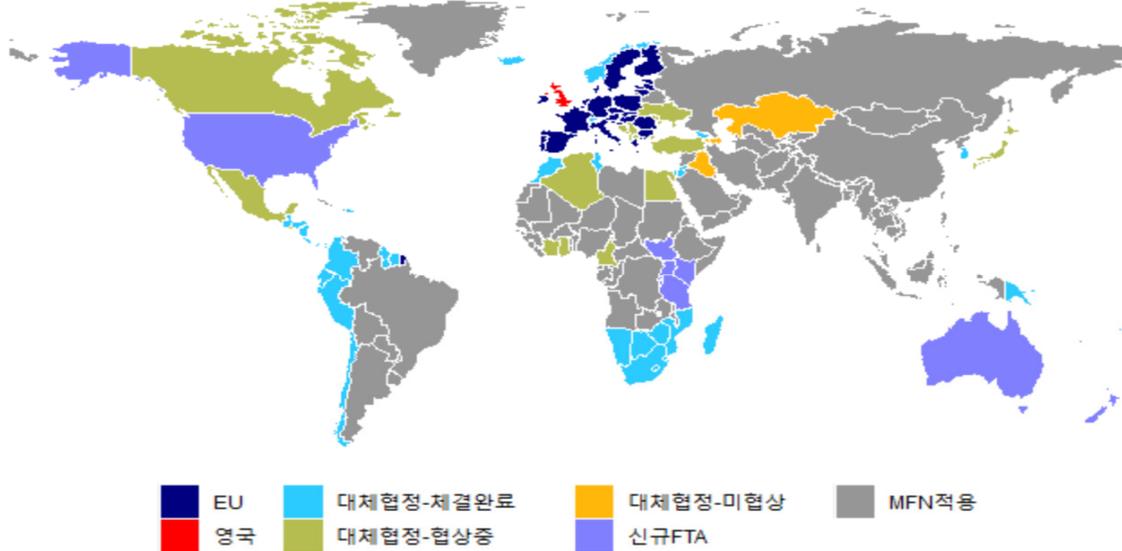
■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은 기존에 EU가 76개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 중 스위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연속성을 확보(그림 1 참고)

- 한국은 2019년 8월 영국과 대체 FTA를 체결하여 이행기 종료 이후에도 무역 연속성을 유지
-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9개국⁴⁾과의 대체 협정 협상은 2020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
 - 일본의 경우 2019년 발효된 EU·일본 EPA 적용 초기 단계로, 영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 신규 FTA를 추진
-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등 무역 비중이 낮은 9개국⁵⁾과는 현재까지 협상이 개시되지 않음.

4)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메룬,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가나, 일본, 멕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북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2020년 6월 28일 기준).

5) 2020년 6월 28일 기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모로, 엘살바도르, 이라크,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사모아, 솔로몬 제도.

그림 1.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협정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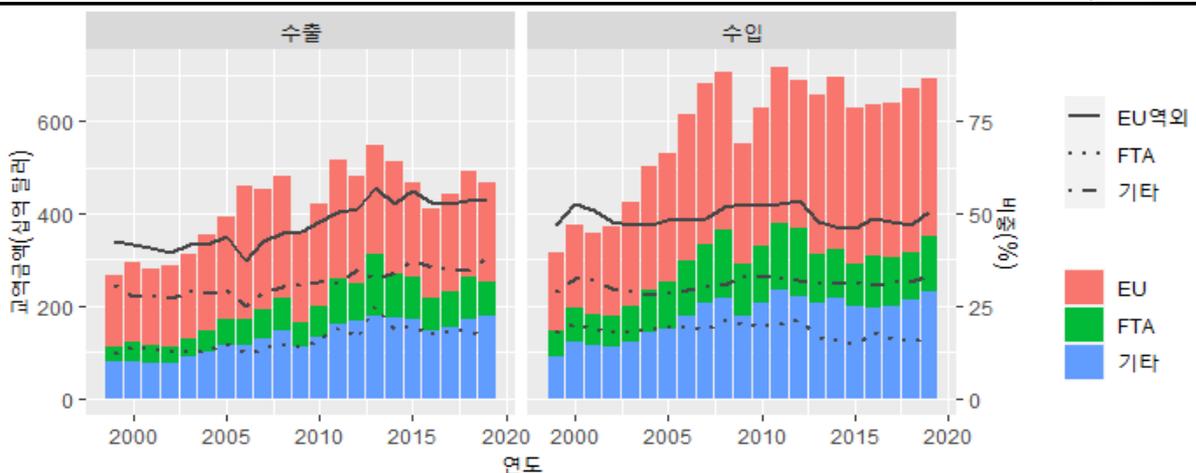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검색일: 2020. 6.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존 EU 무역협정 체결 76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영국 전체 교역의 16%,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교역의 32% 수준 (그림 2 참고)

- 기존 무역협정 체결국 중 상위 5개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터키로 영국 전체 무역의 10.9%를 차지하고, 무역협정 대체 대상국과의 교역 중 66%를 차지
 - 영국 교역에서 EU 및 기존에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영국 무역의 탈EU화가 관측됨.
-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 EU 규제의 영향을 받는 유럽 내 비EU 국가들이 상위 교역상대국으로, 이들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함.

그림 2. 영국의 상품무역 규모 및 비율

(단위: 십억 달러, %)



주: FTA 액수와 비중은 2020년 6월 28일 기준 발효국으로 소급 적용.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영국의 대체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비중은 %)

순위	국가명	대체 FTA	수출		수입		교역규모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4	스위스	체결	15,615	3.3	23,663	3.4	39,277	3.4	-8,048
5	노르웨이	체결	4,667	1.0	19,787	2.9	24,455	2.1	-15,120
6	캐나다	추진	6,725	1.4	15,910	2.3	22,635	2.0	-9,185
7	일본	추진	8,339	1.8	13,024	1.9	21,363	1.8	-4,685
8	터키	추진	6,414	1.4	12,123	1.8	18,537	1.6	-5,709
14	남아프리카공화국	체결	2,349	0.5	8,459	1.2	10,808	0.9	-6,110
15	대한민국	체결	4,803	1.0	5,034	0.7	9,837	0.8	-231
16	싱가포르	추진	6,882	1.5	2,211	0.3	9,093	0.8	4,672
22	멕시코	추진	1,804	0.4	3,386	0.5	5,190	0.4	-1,582
26	이스라엘	체결	1,870	0.4	1,356	0.2	3,226	0.3	514
기타	66개국	-	14,282	3.1	12,099	1.7	26,381	2.3	2,184
계	76개국	-	73,751	15.8	117,052	16.9	190,803	16.4	-43,302

주: 2019년 기준. 순위는 영국 전체 교역 규모(수출 및 수입 금액의 합) 기준.

자료: FTA 추진 현황은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검색일: 2020. 6. 27) 참고, 교역규모는 UN Comtrade(검색일: 2020. 6.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대체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영국이 체결한 대체 무역협정은 기존에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상품 양허,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지리적 표시제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무역 연속성 확보에 주력

- 기존에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할당쿼터(TRQ) 및 농업간접수입제한조치(ASG)가 포함된 경우 기존 수량 기준을 영국과 협정 상대국 간 해당 상품의 무역 규모에 맞추어 재조정
- 한·영 FTA의 경우에도 기존 한·EU FTA의 내용 대부분을 계승하였고, TRQ 및 ASG은 양자무역 규모에 맞게 재조정
 - 지리적 표시제 보호 대상 또한 기존 한·EU FTA 품목을 새 협정에 이식(영국 및 아일랜드 각 1개 품목, 한국 64개 품목)
 - 기존 한·EU FTA에 있는 TRQ(맥아, 사료) 및 ASG(소고기, 사과 등 9개 품목) 수량 기준도 한·영 무역 규모에 맞춰 조정

■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인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와의 대체협정은 EU의 규제 간접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관련 규제(인증 등),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 및 경쟁법 적용을 일부 제외⁶⁾

- EEA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영국이 EU 인증 및 허가를 계속 인정하기로 하여 지속성을 확보
- 다만 EEA 지역에 영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EU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므로 간접 영향 발생
 - 영국 제품의 EEA 내 인증은 EU의 결정사항으로,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음.

6) 영국정부 홈페이지, "Continuing the United Kingdom's trade relationship with Iceland and the Kingdom of Norwa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95335/100419_OFF-SEN_EEA_PR.pdf(검색일 2020. 6. 29).

■ 브렉시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변경으로 대체 FTA에서는 EU 부분품 및 가공 역내산 인정(누적), 또는 양측 산업의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도입으로 대응

- 브렉시트 전에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EU산 부분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누적)되었지만, 브렉시트 이후 대체 FTA에서는 EU 부가가치 기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내산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EU 경제권에 속해 있는 EE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와의 대체 무역협정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산 부분품 사용과 EU 내 가공이 계속 역내산으로 인정(누적)될 수 있도록 하였음.⁷⁾
 - 스위스의 경우 원산지 인정 조항이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으로 대체될 때까지 최대 3년간 유지된다는 단서조항 존재⁸⁾
- 비EU 국가 중 이스라엘, 모로코, 튀니지, 레바논의 경우 영국이 참여하고 있는 ‘범유럽-지중해 협정(PEM: Pan European-Mediterranean Convention)’에 명시된 역내산 인정(누적)이 계속 됨.
- 한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협정에서는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 직접운송조항 또한 생산 및 공급망 조정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⁹⁾¹⁰⁾

■ 대체 무역협정에서 EU 부분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국과 협정 당사국간 무역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GVC 재편에 따른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기존 EU 체결 무역협정을 적용하는 무역에서 영국산 부분품 및 가공의 인정(누적)은 EU와 해당 당사국이 정할 사안
 - 예를 들어 한국과 EU 무역에서 영국산 부분품 및 가공의 역내산 인정은 한·EU FTA에서 추가 협상 필요
- EU·영국 무역에서 기존 EU 체결 협정국 부분품 및 가공의 인정(누적)은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에서 다를 사안
 - 예를 들어 EU·영국 무역에서 한국산 부분품 및 가공의 역내산 인정은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에서 다를 사안인데, 아직 논의된 바는 없음.
- 2019년 영국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비율(DVA)은 63%이고, 나머지 해외 부가가치(FVA) 중 절반 가까이가 EU 기여분으로 (전체 부가가치 대비 15%), 비유럽 국가와의 교역에서 GVC 재편이 불가피
 - 특히 영국과 EU의 경제 규모 차이로 원산지기준 적용의 변화는 EU보다 영국 무역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전망

7) 영-노르웨이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s-no172019-agreement-between-the-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iceland-and-the-kingdom-of-norway-on-trade-in-goods>(검색일 202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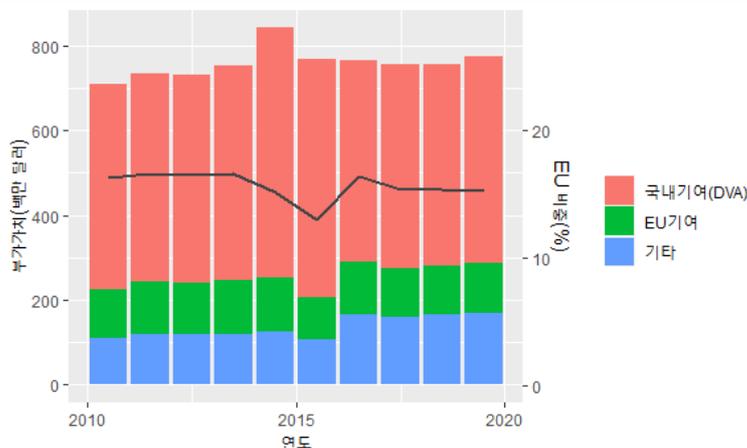
8) 영-스위스 FTA,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0200/CS_Swiss_4.2019_FTA.pdf(검색일 2020. 7. 1).

9) 영국-남아프리카관세동맹 EPA,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5766/U_K_SACUM_EPA_parliamentary_report.pdf(검색일: 2020. 7. 1)

10) 한-영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k/2/kor/54%20Protocol%20on%20Definition%20of%20Originating%20Products_kor.pdf(검색일: 2020. 7. 1).

그림 3. 영국 수출 부가가치의 구성별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주: EU 기여분 및 기타 합이 해외부가가치 기여(FVA). 실선은 EU 기여 비중.

자료: UNCTAD Eora 자료, <https://worldmrio.com/unctadgvc/>(검색일: 2020. 6. 28)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신규 FTA 추진 동향

가. FTA 협상 대상국 및 교역 동향

■ 영국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우선 FTA 추진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협상을 진행 중¹¹⁾

- 미국과의 FTA 협상은 2020년 5월 5일 개시되었으며,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6월 17일 개시
- 일본의 경우 기존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2019년 2월부터 단계적 적용 중으로, 영국정부는 기존 협정을 기반으로 적용 일정 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협상을 6월 9일에 개시¹²⁾

■ 우선협상 대상국 중 미국은 EU에 이은 영국의 2위 무역상대국이며(개별 국가로는 1위), 호주(10위) 및 뉴질랜드(33위)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음.

- 영국의 대미 교역은 수출의 약 16%,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64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오랜 우방국이나, 교역 비중은 각각 1.4%, 0.2%로 낮은 편임.

11) 영국 의회, "UK / EU relations:Written statement,"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03/HCWS86/>(검색일: 2020. 6. 28).

12)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s-approach-to-negotiating-a-free-trade-agreement-with-japan/uk-japan-free-trade-agreement-the-uks-strategic-approach#chapter-2-japan>(검색일: 2020. 6. 29).

표 3.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의 상품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	미국	73,510	15.7	67,089	9.7	140,599	12.1	6,421
7	일본(참고)	8,339	1.8	13,024	1.9	21,363	1.8	-4,685
10	호주	5,528	1.2	10,795	1.6	16,323	1.4	-5,267
33	뉴질랜드	1,072	0.2	1,052	0.2	2,124	0.2	20

주: 2019년 기준 순위는 전체 교역규모(수출 및 수입금액의 합)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우선협상 대상국과의 교역에서 영국은 고배기량 승용차, 의약품, 항공기 및 선박용 엔진(터보제트)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석유, 항공기 및 선박용 엔진(터보제트)과 그 부분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은 호주와의 교역에서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으로 무역적자를 기록 중
- 일본은 영국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및 저배기량 자동차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의 경합 예상
 - 한국의 대영국 주요 수출품 또한 저배기량 및 친환경 자동차로, 영·일 FTA에서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경쟁 심화 예상

표 4. 영국의 FTA 우선협상 대상국 및 한국과의 수출입 상위 품목 비교

(2019년, 금액 기준)

대상국	수출	수입
미국	1. 1,500~3,000cc 가솔린 승용차(870323) 2. 백신 (300220) 3. 3,000cc 이상 가솔린 승용차(870324)	2. 석유(270900) 3. 터보제트(841112) 4. 터보제트 부분품(841191)
일본	1. 터보제트(841112) 2. 의약품(300490) 3. 터보제트 부분품(841191)	2. 가솔린 하이브리드 승용차(870340) 3. 가스터빈(841181) 4. 1,000~1,500cc 가솔린 승용차(870322)
호주	1. 1,500~3,000cc 가솔린 승용차(870323) 2. 인쇄물(490199) 3. 의약품(300490)	2. 납(780199) 3. 의료기기(902190) 4. 포도주(220429)
한국 (참고)	1. 석유(270900) 2. 터보제트(841112) 3. 2,500cc 이상 디젤 승용차(870333)	1. 1,000~1,500cc 가솔린 승용차(870322) 2. 가솔린 하이브리드 승용차(870340) 3. 1,000cc 이하 가솔린 승용차(870321)

주: HS코드 6자리 기준.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반가공 금(710813)이 수입물품 1위이나, 비정기적 무역으로 표에서 제외.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23)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협상 현황 및 주요 쟁점

■ 영국정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요 수출품의 인증 중복을 피함.

- 영국의 MRA 대상 품목은 기존에 EU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MRA 품목과 동일하여, 시장 확대보다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지속성에 의미가 있음.

표 5. 영국 체결 상호인정협정 적용 분야

제품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자파시험인증(EMC)	O	O	O
자동차 부품(automotive products)	X	O	X
저전압 제품(low voltage equipment)	X	O	O
기계류(machinery)	X	O	O
의료장비(medical devices)	X	O	O
압력장비(pressure equipment)	X	O	O
무선통신장비(telecommunication equipment)	O	O	O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O	O	O
해양장비(Marine Equipment)	O	X	X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검색일: 2020. 5. 8).

■ [영·미 FTA 협상] 양측은 농업, 보건,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이견을 보여 빠른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¹³⁾

- 영국은 현재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는 미국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화학처리 가공육 등 영국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 개방을 요구
- 서비스 산업의 경우 영국은 미국의 금융서비스 개방, 데이터 이동 제한 철폐, 핀테크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지만, 영국이 4월 부터 도입한 디지털세로 인해 마찰 발생¹⁴⁾
 -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여 유럽산 자동차에 보복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음.
- 의약품의 경우 영국은 국가의료서비스(NHS)가 의약품 가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무역협정이 의약품 가격은 물론 의료 서비스 제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영·일 FTA 협상] EU·일본 EPA상 자동차 관세의 철폐 일정 조정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¹⁵⁾

- 2019년 2월 발효된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은 향후 10년간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나, 일본은 즉시철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은 서비스와 섬유산업에서 일본 시장 접근 강화를 희망

■ [영국·호주·뉴질랜드 FTA]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협상에 큰 이견이 없으며, 상호 사증 면제와 인력 이동의 자유가 주요 안건¹⁶⁾

13) Politico(2020. 5. 5), <https://www.politico.eu/article/five-things-to-watch-in-uk-us-trade-talks/>(검색일: 2020. 6. 28).

14)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는 오태현(2020),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15) Japan Times(2020. 6. 9),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06/09/business/economy-business/japan-uk-trade-agreement-talks/>(검색일: 2020. 6. 28).

16) News.com.au(2020. 6. 17), <https://www.news.com.au/finance/economy/australian-economy/australiauk-free-trade-agreement-negotiations-get-underway-with-some-industries-tipped-to-win-from-removing-trade-barriers/news-story/869e05d99f1386deea5ad405ca2560f2>(검색일: 2020. 6. 29).

4. 최혜국관세 적용 대상국과의 교역

가. UKGT 적용 대상국 및 교역 동향

■ 영국의 최혜국관세인 UKGT의 적용 대상은 기존에 EU와 무역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으로, 무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약 36%를 차지(표 6 참고)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대체 무역협정과 신규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도 MFN 관세의 적용 대상임.
-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또한 MFN 관세 적용 대상
- 최빈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은 기존 EU GSP 제도를 따름.

표 6. MFN 적용 대상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규모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	중국	30,147	6.4	65,539	9.5	95,686	8.2	-35,392
9	러시아	3,375	0.7	14,126	2.0	17,501	1.5	-10,751
11	인도	5,877	1.3	9,848	1.4	15,725	1.4	-3,970
12	홍콩	11,223	2.4	4,407	0.6	15,630	1.3	6,816
13	아랍에미리트	9,977	2.1	1,877	0.3	11,854	1.0	8,100
17	베트남	776	0.2	6,019	0.9	6,795	0.6	-5,242
18	사우디아라비아	4,186	0.9	2,434	0.4	6,620	0.6	1,752
19	브라질	2,464	0.5	3,021	0.4	5,484	0.5	-557
20	태국	1,563	0.3	3,839	0.6	5,402	0.5	-2,276
21	카타르	3,259	0.7	1,990	0.3	5,249	0.5	1,270
기타	-	106,101	22.7	119,852	17.3	225,953	19.5	-13,751
계	-	178,948	38.2	232,951	33.6	411,899	35.5	-54,003

주: 2019년 기준 순위는 전체 교역 규모(수출 및 수입 금액의 합) 기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9)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UKGT 내용 및 주요 특징

■ UKGT 평균 세율은 5.7%로 기존 EU의 공동역외관세(CET) 7.2% 대비 더 개방적이며, 영세율 품목 비율도 47%로 높은 편임(표 7 참고).

- EU CET 대비 UKGT는 전체 1만 1,830개 품목 중 △2,001개 품목은 무역자유화(영세율) △12개 품목은 관세 인하 △4,747개 품목은 관세체계 단순화 △1,107개 품목은 기준통화 변경 △나머지 3,963개 품목은 기존 관세율 유지
 - 기존 EU CET 중 관세율이 2% 미만인 소액관세(nuisance tariff)를 모두 영세율로 변경
 - 동물, 곡물, 식품 등 무게나 부피 단위를 기준으로 유통화 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은 지난 5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파운드화로 변환(1EUR ≒ 0.8GBP)

■ 산업별 관세 조정은 영국 내 사정에 맞추어 △제조업은 중간재 및 국내 미생산 품목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고 △농·어업은 기존 EU CET 수준을 유지¹⁷⁾

- 승용차의 경우 기존 EU CET 관세인 10%를 유지하여 EU 수준의 자동차산업 보호정책이 유지될 전망
 - 반면 화물차 트레일러 등 상용차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22%에서 10%로 관세율을 인하
- 중간재 중 영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구리관(tube), 볼트류 등은 영세율로 변경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 영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백색가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은 영세율로 변경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 의약품 또한 대부분 영세율로 변경됨.

표 7 . 영국 최혜국관세(UKGT)와 EU 공동역외관세(CET) 비교

(단위: %)

분류	평균세율		영세율 품목 비중	
	UKGT	EU CET	UKGT	CET
전체	5.7	7.2	47	27
농업	16.1	18.3	23	16
어업	11	11.7	8	8
식품가공업	10.6	15.9	41	29
제조업	2.5	3.7	57	31

자료: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he-uk-global-tariff>(검색일: 2020. 6. 29) 저자 재구성.

5. 결론: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정책 과제

■ 브렉시트로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하게 된 영국은 △대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기존 EU 체결 무역협정 대체 △신규 무역협정 체결 △관세조정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4종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비EU 국가의 통상에 대해 영국은 △대체 FTA 추진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 △UKGT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음.
- 영국이 발표한 UKGT는 기존 EU CET 대비 영국 내 실정과 산업정책에 특화되어, 독자적인 통상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기대되기도 함.

■ 다만 영국과 비EU 국가의 통상환경은 많은 부분이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에 연계되어 있는바, 브렉시트 이후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예상됨.

- 스위스, 노르웨이 등 영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 내 비EU 국가들(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경우 이미 직·간접적으로 EU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EU의 규제 간섭이 불가피함.

17) 영국정부 홈페이지, "UK Global Tariff backs UK businesses and consume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global-tariff-backs-uk-businesses-and-consumers>(검색일: 2020. 6. 28).

- 영국의 제2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농산품, 보건, 서비스 등 민감 분야의 개방이 요구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
- 또한 독자 FTA 추진의 경우 원산지규정 적용 변경으로 인한 GVC 재편에 따라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o 원산지규정은 영국·기존 EU 무역협정 체결국뿐 아니라 영국·EU, EU·기존 협정 체결국 간에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의존

■ 결국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정책은 자유무역 추진과 규제 자율성 확보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될 전망

-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서는 자유무역 유지를 대가로 한 EU 규제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FTA 협상에 서는 자유무역을 대가로 민감 분야에 대한 탈규제가 요구되고 있어 영국의 선택이 필요

■ 한국과 영국은 2019년 8월 대체 FTA를 체결하여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하고 있지만, 양자 교역에서 EU 부분품의 역내산 인정문제 및 영국과 일본의 FTA 협상 결과 등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 **KIEP**

부록: 영국의 상품무역 현황

부표 1. 영국의 형태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세계		EU		EU 역외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기존 FTA 체결국		기타 국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5	금액	466,296	630,251	204,318	339,965	88,891	90,851	173,086	199,435
	비중	100	100	43.8	53.9	19.1	14.4	37.1	31.6
2016	금액	411,463	636,368	193,558	326,098	72,515	114,557	145,391	195,713
	비중	100	100	47.0	51.2	17.6	18.0	35.3	30.8
2017	금액	441,847	640,908	209,512	335,758	78,749	104,130	153,587	201,020
	비중	100	100	47.4	52.4	17.8	16.2	34.8	31.4
2018	금액	490,840	671,694	227,735	356,251	93,181	103,266	169,925	212,177
	비중	100	100	46.4	53.0	19.0	15.4	34.6	31.6
2019	금액	468,160	692,580	215,250	342,547	73,961	117,082	178,948	232,951
	비중	100	100	46.0	49.5	15.8	16.9	38.2	33.6

주: FTA 협정 체결국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자료: 영국의 FTA 추진 현황은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검색일: 2020. 6. 27) 참고, 교역 규모는 UN Comtrade(검색일: 2020. 6. 9) 토대로 저자 작성.

부표 2. 영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EU협정	대체협정	수출		수입		교역규모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EU	-	추진	215,250	46.0	342,547	49.5	557,797	48.1	-127,297
2	미국	X	신규	73,510	15.7	67,089	9.7	140,599	12.1	6,421
3	중국	X	X	30,147	6.4	65,539	9.5	95,686	8.2	-35,392
4	스위스	O	O	15,615	3.3	23,663	3.4	39,277	3.4	-8,048
5	노르웨이	O	O	4,667	1.0	19,787	2.9	24,455	2.1	-15,120
6	캐나다	O	추진	6,725	1.4	15,910	2.3	22,635	2.0	-9,185
7	일본	O	추진	8,339	1.8	13,024	1.9	21,363	1.8	-4,685
8	터키	O	O	6,414	1.4	12,123	1.8	18,537	1.6	-5,709
9	러시아	X	X	3,375	0.7	14,126	2.0	17,501	1.5	-10,751
10	오스트레일리아	X	신규	5,528	1.2	10,795	1.6	16,323	1.4	-5,267
11	인도	X	X	5,877	1.3	9,848	1.4	15,725	1.4	-3,970
12	홍콩	X	X	11,223	2.4	4,407	0.6	15,630	1.3	6,816
13	UAE	X	X	9,977	2.1	1,877	0.3	11,854	1.0	8,100
14	남아공	O	O	2,349	0.5	8,459	1.2	10,808	0.9	-6,110
15	대한민국	O	O	4,803	1.0	5,034	0.7	9,837	0.8	-231
16	싱가포르	O	추진	6,882	1.5	2,211	0.3	9,093	0.8	4,672
17	베트남	X	X	776	0.2	6,019	0.9	6,795	0.6	-5,242
18	사우디아라비아	X	X	4,186	0.9	2,434	0.4	6,620	0.6	1,752
19	브라질	X	X	2,464	0.5	3,021	0.4	5,484	0.5	-557
20	태국	X	X	1,563	0.3	3,839	0.6	5,402	0.5	-2,276

주: 2019년 기준, 순위는 교역 규모(수출 및 수입금액의 합) 기준.

자료: 영국의 FTA 추진 현황은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검색일: 2020. 6. 27) 참고, 교역 규모는 UN Comtrade(검색일: 2020. 6. 9) 토대로 저자 작성.